

## 開 會 辭

李 泰 旭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長〉

國際關係研究中心의 林碧炤 主任,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內外貴賓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가하시는 韓中學者 여러분, 오늘 뜻깊은 제11차 韓中學術會議에서 韓國側을 代表하여 開會人事를 드리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10年의 歷史를 기록하는 韓中學術會議은 이제 國際學術會議로서 완전히 정착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結實은 10년 동안 꾸준히 韓中兩國의 많은 분들께서 이 會議의 중요함을 인정하시고 열심히 議會에 참가해 주시고 또 뒤에서 後援을 해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參席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韓中國家關係에 있어서 政府次元에서 公式的인 外交關係도 중요하겠지만 이같은 학술회의를 통한 民間交流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10次 회의를 지나는 동안에 韓中兩國의 저명한 學者間에 學術情報 交換을 통한 學術的 協調體制가 이룩되었으며, 그리고 兩國國民이 지니고 있는 親密하고 同志的인 이웃이라는 감정을 회의가 진행될수록 재확인하면서 더욱 관계가 깊어져 왔습니다. 이 점에서 이같은 학술회의를 통한 民間交流가 韓中兩國 關係를 形式的이 아니라 實質的으로 돈독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第6次 韓中學術會議부터 參席하기 시작하여 오늘 이 자리는 벌써 6번째가 됩니다. 그동안 會議를 통하여 많은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臺北市 방문도 3번째 임니다만 어느 외국도시 보다 낮익고 가까운 이웃이란 것을 올 때마다 느낍니다.

이같은 親密한 감정은 中華民族과 韓民族이 많은 점에서 文化的 遺產을

같이 하면서 오랫동안 이웃으로 함께 살아 왔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中華民國과 大韓民國 國民들이 2次大戰후 지금까지 分斷의 苦通을 같이 겪고 있다는데서 더욱 同志愛的 감정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韓中學術會議에서도 分斷國으로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고 앞으로 民族統一의 길을 걸기 위하여 무슨일을 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서로 討論과 意見交換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東歐社會主義國家들은 體制의 몰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소련과 中華人民共和國에서도 體制改革과 開放을 통한 탈바꿈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과 東西和合의 새로운 國際秩序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東西獨은 이미 統一國家를 이룩하였습니다. 이제 亞細亞 地域의 中華民族과 韓民族만이 分斷된 상태로 같은 民族끼리 서로 對立되어 아직까지 苦通을 겪고 있습니다.

東歐社會主義의 體制變革이 中國大陸과 北韓에 있어서 과연 어떤 영향을 주며 또한 變化를 있게하고 있는지 여부를 討論함으로써 먼 훗날의 統一을 위하여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第11次 會議에서 兩側의 合意에 의하여 “社會主義體制 變化와 分斷國家의 統一問題”라는 主題를 정하였습니다. 이 主題 자체가 韓中 兩國民의 共通된 運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兩側에서 모두가 분야의 專門家들이 모여 發表와 討論을 맡아주어 會議의 意義를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의 會議에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會議의 韓國側 參席者들을 代表하여 이 會議를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주신 林主任 이하 國際關係研究中心의 準備委員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0年 12月 3日